



각에 달려있는 질박한 장면이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朝鮮人이고 黑衣를 입고 서있는 사람들이 日本人들이란 것은 題跋下の 「日本人 藤楞本 慮其危 拔所佩刀截兩橋」이라는 句節로 보아 짐작이 간다고 하겠다. 즉 이 그림에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긴칼을 빼어들고 돛대를 후려치는 동작이 그려졌고 부러진 돛대 하나가 이제 막 파도위에 떨어지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는 것이다. 危急한 事態에 부닥쳐서 도 然自若하는 흰옷입은 사람들의 姿勢가 船橋위에 잘 表現되어 있어서 어 덴가 모르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야릇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棠의 題跋로 보아 小 棠金夷準의 父金繼 運이 哲宗六年(一八 五五)二月 日本國 關伯의 襲位를 祝賀 하기 爲한 使節로서 日本에 갔다가 歸國 하는길 洋上에서 暴 風을 만나 朝鮮人 七 十一名과 日本人 八 名을 태운 巨船이 難 破에 直面해서 漂流 하고 있는 情況을 그 린 것이다. 이제 船 體의 大部分이 浸水 되었고 겨우 남아 있 는 船橋위에 船客들 이 待避해서 혹은 앉 아있고 혹은 쓰러진 채 모두의 운명이 경

어쨌든 비록 小品이기는 하지만 蕙山 劉淑의 作家的 力量이 그 簡枯한 文氣와 함께 잘 發揮된 作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때는 그 후 漂流五晝夜동안 겨우 남은 목숨들이 배와 함께 蔚山 鮐 魚津에 標着해서 救助되었고 小棠은 그의 父가 겪은 이 海難을 紀念하 기 爲하여 哲宗九年(一八五八)에 劉淑에게 請해서 그날의 情況을 그리 게 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이 畫幅의 넓이는 三〇·二cm 높이는 二 五cm 畫帖의 크기는 二五cm x 一五·三cm이며 小棠自身的 題跋을 筆頭로 해서 藕船李尙迪 石南 尹東龜 袁世凱 山本正義等 内外人士 數十人의 題 跋이 이 그림에 連續되어 있다.

### 清原郡 靈下里 石像

李 殷 昌

忠北線 內秀驛 앞으로 흐르는 河川을 따라 東行하기를 約四km 地點이 면 上流溪谷인 清原郡北三面靈下里 塔山洞이 나서고 部落 民家 사이에 逸名寺址가 있다. 寺址에는 다만 瓦片和 石片이 散在하여 있을 뿐인데 이 곳 卞相俊氏집 안마당에 集群된 石像들이 있으며 다시 約二〇m 南쪽 에 石塔(誌)이 있다. 石像과 石塔은 破壞가甚하나 아직 남아있는 彫刻 을 通하여 그 精巧를 다한 優作임을 推測할 수 있는데 이미 缺失된 石 像도 많은 것 같고 現存하는 石像도 原位置를 變更하였고 破損이 많으나 參考가 될만한 것이기에 이에 紹介하고자 한다.

#### 一、石造如來座像

諸石像의 中央에 位置한 花崗石製인 바 臺座와 光背가 具存하는 座像이다.

像은 素髮로 肉髻가 높고 兩耳가 길며 耳朶가 兩어깨까지 드리워 있다. 顔部는 兩眉、兩眼、鼻梁、口唇等을 完全 喪失하여 그 相好



를 모르겠고 다만 兩頰部에서 豐滿相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頸部에는 三道가 뚜렷하게 彫刻되었다. 通肩衣에 衣紋은 雄健하고 胸前에서 옷깃을 Y字形으로 여민 모습이 注目되며 平行斜線이 흘러내려 流麗한 主尊像이 整齊美를 보이었고 結跏趺座에 觸地降魔의 印相을 하였다.

光背는 高에 比하여 幅이 넓은 特殊한 舟形을 하였고 彎曲度는 적다. 頭光은 雙條陽刻圈內에 學房을 가진 蓮花紋을 새겼다. 身光은 頭光으로부터 雙條陽刻線으로 되었고 內外間帶에는 秀麗한 寶相華紋이 새겨졌으며 外緣으로는 火焰紋이 彫刻되었다. 化佛五軀가 配置되었는 바 蓮花座에 光背가 兼全하고 結跏趺座의 正視像이다.

臺座는 下臺石이 埋沒되어 彫刻 모습을 모르겠으나 下臺石은, 四角短竿石으로 되었는데 各面に 鮮麗한 眼象이 一個씩 刻出되었다. 上臺石은 亦是 四角盤石으로 되었는데 바들레에 仰蓮紋을 彫刻하였으니 이른바 須彌座를 形成하고 있다.

造像・光背・臺座 모두 精巧를 다하였고 곧 如來座像으로 本伽藍의 主尊像으로 推定된다. 實測值(cm)

- 總高(地上高)……二二〇 佛像……高 一一二〇 膝幅九五光背……高 一五〇 幅 一六〇 臺座……總高 六〇 中臺石 高三六 幅八五 上臺石 高(厚)二五 幅 一一五

二、石造立像  
石造如來座像의 右側(西便)에 長大한 舟形光背에 浮出된 石造立像이 位置하고 있다.

像은 素髮로 肉髻가 작고 높다. 兩耳는 細長하여 兩어깨까지 드러 있었다. 顔面은 傷痕을 입어 分間하기 어렵고 다만 微笑어린 口唇과 豐滿한 兩볼이 隱然히 보인다. 頸部에는 三道가 있고 通肩衣에 圓弧를 그리며 주름지는 衣紋이 全身을 감싸고 있다. 左手는 견어 울러 胸前에서 內掌하고 右手는 右側에 垂下된 바 五指를 自然스럽게 하였다. 下部는 埋沒로 臺座의 有無를 모르겠고 衣下에서 두발이 드러나 直立正面像을 하였다.

光背는 擧身光背인 바 等行雙線으로 頭光과 身光을 表現하고 雙線外의 周緣으로는 火焰紋이 流麗하게 線刻되었으며 五軀의 化佛을 配置하였다.

이 石造立像은 彫刻솜씨가 高古한 것으로 보이는 바 年代는 前者 石造如來坐像과 같은 재인가 하며 또 前者 石造如來坐像인 主尊像에 對한 左右 兩脇侍像의 하나인지도 모르겠다.

① 總高(地上高)……二二〇 cm

② 佛像……高 一九〇 cm、肩幅 六〇 cm、頭部長 四五 cm、

③ 光背高 二二〇 cm、幅 一〇五 cm

### 三、仁王像

石造如來坐像 左側(東便)에 仁王像 二軀가 있다. 모두 長方形板石 一面에 浮彫되었는 바 其一은 圓形의 頭光이 있고 頭部와 胸部의 大部分・左腕 등이 破損되어 遺憾이나 頭上의 結髮、胸下部와 腹部의 筋力・垂下現掌한 右手와 岩座에 버티고 서 있는 兩脚의 筋骨等은 忿怒과 勇猛한 氣風이 넘쳐흐른다. 腰部에 걸쳐 입은 裳衣가 脚上에서 주름지고 兩腕에 걸쳐진 天衣가 身部兩側에서 曲線을 지으며 휘날리는 表現은 簡古하면서도 生動한 彫法을 하였다. 其二는 石質關係로 磨滅이 極甚하여 彫刻이 明確하지 못하고 다만 비스듬한 頭上・右手를 위로올려 주먹을 볼근 친 모습 左手를 옆으로 내뻗은 모양 兩脚을 버티고 서 있는 形態等 怒氣의 像이 認定된다.

- 其一 ① 總高(地上高)……二二五 cm ② 板石……高 一三五 cm 幅 七五 cm ③ 像……高(頭光包含) 二二五 cm 肩幅 四〇 cm

其二 ① 總高(地上高) 一七〇cm ② 板石高 一七〇cm 幅 六〇cm  
 ③ 像高 一〇五cm 肩幅 四〇cm

四、神將像

石造如來坐像의 右側(西便)에 隣接한 長方形의 板石에 浮刻한 것인데 板石 上部가 破損되어 圓形의 頭光 結髮部分、耳朶部分이 若干 보일뿐 其外는 破失되었다. 兩肢를 덮은 戎服의 勁健한 옷주름와 옷끈의 表現, 身部에서 나부끼는 天衣의 曲線, 岩盤座의 兩脚의 姿態等 모두 優作에 두어야 할 彫法이다. 造像樣式으로 보아 이 神將像은 四天王像으로 推定하여 불지도 하나 破損이 甚한 關係로 그 眞假를 모르겠다.

- ① 總高(地上高) 一九〇cm ② 板石高 一九〇cm 幅 六〇cm  
 ③ 像高(頭光包含) 一二五cm 肩幅 四〇cm

五、石造佛坐像

前記 石像以外에 石造佛坐像 二軀가 現存하는 바 모두 頭部가 破失된 座體만이 殘存하는 것이다. 其一은 通肩衣에 衣紋은 胸前에서 U字形을 하고 다시 流麗한 圓弧線을 그리며 下部로 주름진다. 兩手가 破失되어 手印이 明確하지 않으나 推測컨대 結跏趺座한 正面像인 것 같다. 其二는 破損이 더욱 甚하다 겨우 左側 耳朶 一部와 頸部 三道의 線刻 一部가 남았고 衣紋 一部가 남았을뿐 手印은 未詳하며 結跏趺座한 座體만이 殘存하고 있다.

- ① 其一 高 九〇cm 膝幅 一〇〇cm

三

以上 記述한 石造佛諸像은 新羅統一期의 造像樣式으로 九世紀를 下할 것으로 推定된다. 特히 ① 光背、臺座가 具存하는 石造如來坐像이 主尊像이라 하면 石造立像은 그 脇侍像으로 三尊佛이 짐작되며 ② 또 이 三尊像을 爲하여 仁王像과 四天王像이 配置되었음을 알 수 있겠으며 ③ 그리고 이들 石像背石等에는 方穴·圓孔이 있어 過去의 架構痕跡이 엿보이는 바 이에 新羅時代의 石窟寺院 經宮이 推定된다.

〔註〕 破壤된 石塔一基가 있는데 곧 屋蓋石 五個가 殘存하는 것으로 그

屋蓋石의 下部와 上部에 層節表示가 있어 模塼石塔이 推定되고 있다.

靈光 新川里의 三層石塔

鄭 永 鎬

全南靈光郡敵良面新川里의 「태절골」이라 불리우는 마을에 羅代의 三層石塔一基가 遺存한다. 이 一帶는 寺址로서 周圍밭에는 瓦片이 散在하며 民家가 數戶있는데 石塔外에 石燈一基와 浮屠二基가 한곳에 있어 함께 調査되었다. 이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①와 「東國輿地勝覽」②等에 보이는 바 兩記錄에서 볼때 이 곳은 利興寺址이며 李朝 中葉까지는 存續되었었던 寺刹로 推定된다. ③

總高約 四m의 新羅式一般型의 石塔으로서 二層基壇인데 現在는 下層基壇이 埋沒되어 있어 遺憾이다——이 곳 踏查時에는 一面만을 파서 調査하였음——下基面石에는 撐柱가 二柱있고 二枚石으로 된 下基甲石上面에는 「물당」과 角形받침이 彫出되어 上層基壇을 받고 있다. 上基面石에는 中央에 撐柱가 一柱있으며 一枚石으로 된 甲石에는 副像이 있고 上面에는 「물당」과 角形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는 데 그 手法이 整然하다. 各層 屋身은 모두 一石으로 兩隅柱가 있으며 屋蓋石은 받침이 四段式이고 上面의 二段角形받침으로 뒷層의 屋身을 받고 있

